

[사회]

국립대 학과 모집 부분허용

■ 교육부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우수대학 사범계열 정원 자율화

2009학년도부터 국립대의 공역(학부) 중심 모집 단위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학과 단위로 바꿔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우수대학 사범계열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사립대에서 확보한 교지가 분리돼 있어도 특정거리 내 인접 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하고 학교법인의 채권발행은 장기 차입을 제외하고 신고나 허가없이 할 수 있다.

도시에 위치한 대학 등은 특정 거리 내(예를 들어 1km) 인접 토지를 단일 교지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채권발행(회사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 차입을 제외하고 관할청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대학교명에 설립 주체(국립·도립·시립)를 표기하지 못했으나 이르면 9월부터 표기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사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공동 명의 학위 수여를 위해선 수업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하거나 수업 일부를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도 공동 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5년제 학·석사 학위 과정 통합 운영이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이 내년부터 마련되고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이수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만 학위 수여가 가능했으나 대학원에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학위 수여가 허용된다.

교원 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기존 충족 여부를 1년 단위로 판단해 왔으나 2009년부터 3분의 2를 초과하지는 못하며 기존 충족 여부는 다년 단위로 평가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대학 자율화 주요 내용

현행	개선안
경미한 정관 변경도 사전 인가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대상 축소(2007년)
학교법인의 의무부담시 관할청 허가, 경미한 사항은 신고	학교법인의 기채·장단기 차입금 허가 대상 축소(2009년)
학교법인의 임원 연임 관할청 승인	학교법인의 임원 연임시 사후 보고제로 전환(2009년)
교지 분리시 각 교지별 기준면적 확보 의무화로 도심 캠퍼스 교지 확보에 예외	특정거리내 인접교지는 단일 교지로 인정(2009년)
국립대 광역화된 모집단위 학과제로 분리 운영 불가	국립대 학과 단위 모집 부분 허용(2009학년도)
사범계 학과 정원 조정 및 전공 신설은 교육부가 사전 승인	평가우수대학 사범계열 학과간 정원 자율조정 허용(2011학년도)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불가	5년제 학·석사 학위과정 통합 운영(2009년)
외국 대학 교육과정 이수자 학점 불인정	외국 대학 교육과정 이수자 학점 인정(2010년)
학점은행제 관련 대학 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립된 경우만 대학의 장이 학위 수여 가능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 수여 확대(2010년)
원격대학 24학점을 초과해 이수 불가	원격대학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 완화(2010년)
교원임용시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특정대학 출신 교수 편중채용 제한 제도 개선(2010년)
국가공공자 사립대학이 수업료 면제 등 전액 부담	국가공공자 학비 지원(2008년)



“운주사로 수학여행 와야겠네” 수도권 초·중·고 교사 19명이 2일 오후 화순군 도암면 운주사(雲住寺)에서 와불(臥佛)을 살펴보고 있다. 각급 학교 수학여행 담당 교사들이 이들은 광주시와 전남·북도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개발한 호남권 수학여행 코스를 3일까지 둘러본 뒤 가을철 수학여행 코스 결정에 참고하게 된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태풍 '우사기' 광주·전남 영향 없어 오늘 최고 34도 무더위

제 5호 태풍 '우사기'(USAGI)가 북상하고 있지만 태풍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지역은 3일에도 낮 기온이 29~34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우사기”가 3일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천문현상에 의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이므로 만조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안지역 저지대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2일 광주·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보성·광양·순천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례 36.5도(열지수 40도)로 올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나주 35.2도(“ 37도) ▲순천 34.7도(“ 40도) ▲구례 33.7도(“ 37)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여수 앞바다의 적조도 나로도 해역까지 확산됐다. 이날 여수 해역의 적조피해를 구성하고 있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는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달 31일 여수 화정면 개도 서측 종단~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종단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가 고흥군 외나로도 염포 종단지역까지 확대 발표했다.

남해수산연구소는 “우사기의 영향으로 높은 파고가 일어 적조피해의 확산·분산되면서 적조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태풍이 지나간 뒤 다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침 안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다.

8월 3일
(음 6월 21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25~33
부산	구름 많음	25~31
대구	구름 많음	24~29
대전	구름 많음	24~31
전주	구름 많음	25~34
서울	구름 많음	25~31
인천	구름 많음	24~31
경주	구름 많음	23~32
울릉도	구름 많음	24~34
독도	구름 많음	25~31
제주	구름 많음	26~33
목포	구름 많음	25~32
여수	구름 많음	25~32
해남	구름 많음	25~32
곡성	구름 많음	22~28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4:59 썰물 < 10:15
여수 밀물 < 11:57 썰물 < 05:44

▲해돋이 05:42 ▲해질 19:34 ▲달돋이 21:59 ▲달질 10:01
◇주간날씨 기상내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날씨						
최저/최고	25/30	24/32	24/32	24/33	25/32	25/33

전남교육연 '전시물 현대화 사업' 부실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전남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시물 현대화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교육과학연구원은 14억원을 투입, 학생들의 탐구학습 향상을 위해 기존 전시물을 리모델링하는 '전시물 현대화사업'을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그러나 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전시물에 대한 설계 심의도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데다 변별력 없는 심사 등으로 급조된 업체가 선

정 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시물 제작을 위한 가격조사도 실제(實例)가격이 아닌 업체 간 견적방안과 선정,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으며 규정(20%)보다 많은 기성금(50%)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자료 수집 명목으로 지난해 연말 A부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도덕적 해이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연구원 관계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도깨비 방망이' 터졌다

청소년 3명, 광주 YMCA 도전과제 수행

7일 소원성취금 전달식

‘도깨비 방망이가 터졌다.’ 광주YMCA가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도깨비 방망이’ 프로젝트(본보 2월13일자 15면)를 통해 도전과제를 수행한 3명이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됐다.

30여명의 청소년들이 신청서를 접수, 이 중에서 선정된 5명이 지난 4월초부터 도전과제를 수행해왔다. 전교 20등 안팎의 성적이었다던 A(18·고3)양은 ‘모의고사 전교 10등’을 목표로 내걸어 ‘컴퓨터와 프린터’라는 소원을 성취하게 됐다. A양은 동생과 어머니가 수술을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정신지체 3급인 장애인 B(16·고1)군은 풍선아트 초급과정을 완수하고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평소 풍선에 대한 공포심이 있던 B군은

심사위원을 앞에서 칼, 도끼, 꽃, 물고기, 강아지 등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어 내, ‘MP3, 여동생과 국내 여행, 전자영어사전’ 등의 소원을 이루게 됐다.

C(11·초5)양은 3개월여 동안 48권의 책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하리라고 다짐했고, 훌륭하게 과제를 수행했다. C양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현금을 줄 것을 원했다. 안타깝게 도전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수학 점수 5점 올리기와 전과목 90점 넘기 등을 목표로 내세웠던 D(13)군과 E(14)군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광주YMCA는 이들 3명의 청소년에 대한 소원성취금 전달식을 오는 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갖고, 하반기 ‘도깨비 방망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062)654-4316.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부자라면 27억원 정도 있어야야”

많은 국민들은 우리 나라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 27억 6천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달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결과 ‘우리 나라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이 얼마나 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100억원 이상의

극단값을 내거나 모르겠다는 경우를 제외한 669명의 평균치는 27억6천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강원권이 37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권(31억6천만원), 부산·경남권(27억5천만원), 서울(27억원), 충청권(26억7천만원), 대구·경북권(25억6천만원), 호남권(19억1천만원), 제주권(18억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00% 천연 성분 100% 무첨가
동화약품

피로에 지친 간을 위하여 -

헬민200 연질캡슐

스트레스, 야근, 퇴식에 하루도 쉴 틈 없는 현대인의 간 - 간에 피로하면 하루가 피로합니다.

아르기닌티다아시케이트 200mg 성분의 헬민200은 간의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간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매일매일 헬민200으로 지친 간에 활력을 주십시오.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보조 치료 : 간기능장애, 독성간질환, 초기 간염
【용량·용법】 성인 : 아르기닌티다아시케이트 1회 100~200mg, 1일 2회 식후 복용 【문의전화】 090-023-1697

본사에 문의하시면 상담과 배송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2-22-0100